후쿠이에의 전자뚜껑 구멍 안

구멍 하나도 꼭 필요한 곳에 잘 뚫으면 발명이다

구멍하나도꼭필요한곳에잘뚫으면발명이다. 일본의 후쿠이에는 주전자뚜껑에 뚫은구멍하나로 발명가가되어부를누릴수있었다.

그는욕심이많지 않아자기의 생활에만족하며 살아가고있었다.

그러나어떤일이든맡겨지기만하면최선을다하는 모범사원이기도했다.

그러던어느날후쿠이에는과로로지쳐감기몸살로앓아눕게되었다.

‘ 할 일이 많이 밀려있는데 큰일이구먼…. 웬만하면 털고일어나출근하려했으나도저히일어날수가없었다.

치료를겸해하루쉬기로결심하고침대에누웠다.

침대옆에는 난로가 타고, 그위에는물이 반쯤담긴 주전자가놓여있었다.

오랜만에쉬어보는편안한하루였다.

침대에 누워있던 후쿠이에는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. 바로 그 순간 그의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있었다.

‘ 덜커덩, 덜커덩…. ’

주전자속의물이끓자뚜껑이들썩거리는소리.

주전자 속의 수증기가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듯했다.

주전자를 내려놓을까도 했지만 방안이 건조하고 아예 열어놓자니 방안이수증기로가득차버릴것같아이러지도못하고있었다.

그순간후쿠이에의눈에송곳이보였다. 순간신경질적으로송곳을집어들어주전자뚜껑을찔러버렸다.

신기하게도뚜껑이들썩거리는소리가멈췄다.

수증기또한방안의습도유지에그만이었다.

‘ 잘잤다. ’

한참동안 늘어지게 자고난 후쿠이에는 주전자를 살펴보았다.

주전자속의물은계속끓고있었고, 송곳구멍사이로새어나오는수증기는아름답기까지했다.

‘ 모든주전자뚜껑에구멍을뚫도록해야겠다. ’

채 완쾌되지도 않은 몸으로 특허청을 찾아 실용신안출원을마쳤다.

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전자공장은 물론 냄비공장에서까지그를찾아왔다.

로열티를지불할테니권리를양도해달라는것.

망서릴것도없이계약을체결했다. 구멍뚫린뚜껑의인기가 상승하면서 후쿠이에의수입은 눈이쌓이듯 차곡차곡쌓여만갔다.

왕연중
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
wangyj39@dreamwiz.com

발 • 특2007. 3